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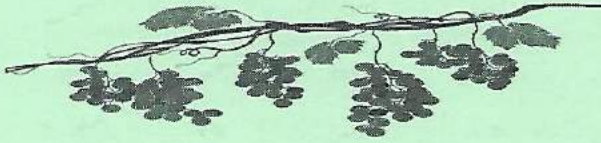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7 주일

제37권 46호(가해) 2017년 10월 8일

[오늘의 묵상]



혼인 잔치와 포도밭의 비유는 하느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만큼 하늘 나라를 잘 표현하는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비유입니다.

농부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밭을 만듭니다. 자신이 손수 공들여 만든 그 포도밭은 자신의 혼이 담겨 있는 자식과도 같은 것이고, 마치 혼인 예식에서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신부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정성이 담긴 포도밭에서 농부는 당연히 좋은 결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포도밭은 주인이 기다리는 결실을 안겨 주지 않고, 소작인의 배신이라는 통탄할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이 간단한 비유 안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인류의 부족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사야 예언서와 예수님의 비유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독서인 이사야서에서는, 포도밭 주인이 울타리를 건어치우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도록 내버려 두어 황폐하게 놓아두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밭 주인은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다른 소작인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중책을 맡은 하느님의 백성, 곧 교회이고, 그 교회의 중심에는 집짓는 이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공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되풀이할지, 아니면 새로운 소작인으로 마지막 날에 제때에 소출을 잘 바칠 수 있을지는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매일 미사 10월호-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서 연락처) : (310)569-3940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 토요일) 성소후원회(첫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오전 10:00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성소후원회(2,3,4,5주일)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도미의 날 (안나/양업/성모/자모/대건) ●꾸리아 ●빈첸시오회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30 오후 1:00 오후 12:3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오전	오후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주임신부 : 심원택 토마스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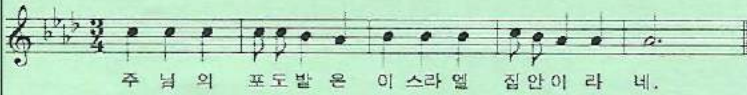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연)이용식 베드로
	(생)김석기 스테파노
학생 미사	(연)
	(생) 손베드로, 이윤희 바오로
주일 낮 미사	(연) 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김진엽 마지아, 정상문 스테파노, 정무원 엘리사벳, 반안셀모, 김정래수산나, 이종갑 부르노, 최병덕 바오로, 박주현 마리아, 임정자 분다, 안병무 & 유무서 & 안준환 마카엘, 김중준, 김충열, 김복순 세실리아, 김중환 야코보 & 라상옥 & 오분세, 김현경, 안경일 요한
	(생) 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 김은학 모니카, 박홍룡 요셉, 김형미 테레사, 박주현 마리아의 은인들, 이금자 테레사, 조소영 수산나 & 조갑제 가정, 박홍룡 요셉의 은인들, 김지훈 대전 안드레아, 한정희 프랑카 수녀, 김마누엘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심원택 토마스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1-7

화답송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
지, 그 햇수들은 장까지 뻗었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
마다 따 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
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
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저희를 살려 주
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
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주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4,6-9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복음 마태오(Matthew) 21,33-43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
은 좋으신 분.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V.세계적 불평등

50. 가난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방
법을 생각하기 보다 출생률 감소만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발 도상국들은 때때로 경제지원을 특정한
‘출산보건’정책에 연계시키라는 국제적 압력을 받습니
다. 그러나 “인구와 이용 가능한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가 개발과 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것
은 사실이지만, 인구 성장과 통합적이고 공평한 개발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28) 지
나친 선택적 소비주의가 아니라 인구증가를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려는 술책일 뿐입니다. 이는 현재의
분배방식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현재의 분배
방식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보편화 될 수 없는 방식으
로 소비할 권리가 자신에게만 있다고 믿습니다. 지구가
그리한 소비로 발생하는 쓰레기조차 감당할 수 없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산된 식량전체의
거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버릴 때마다, 그 음식은 마치 가난한 이
들의 식탁에서 훔쳐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29) 국가와
세계차원에서 인구밀도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소비증가는 환경오염과 교통, 쓰레기
처리, 자원손실,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서로 얽힌
결과로 복잡한 지역사정을 일으킵니다.

51. 불평등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은 우리가 국제 관계의
윤리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현실적인 ‘생태적 빚’은 특
히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상업적 불균형, 그리고 특정국가들이 장기간
에 걸쳐 천연자원을 지나치게 이용한 사실과 관련됩니
다

<계속>

28.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004.4.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제2판 6쇄), 483항.

29. 프란치스코, 「교리 교육」, 2013.6.5.,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르침」(Insegnamenti di Francesco), 1/1(2013), 280.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16	216	186
봉헌	265	265	265
성체	286	286	286
파견	333	333	319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그것은 나를 향한 끝없는 믿음 때문이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말씀들 통해 다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밭 임자가 자기 포도밭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납니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자기 밭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입니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합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고 하면서 서로 짜고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입니다.

아들까지 보내는 주인, 아들을 보내면서 혹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주인은 어떠한 마음에서 아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떠한 마음에서?! 성경은 아들을 보내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단서 하나를 일러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불길한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소작인들이 내 아들이야 알아보고 존중해 줄 거라는 믿음이 계속 앞섰던 것입니다. 사실 주인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그 소작인들 옛날에는 착했어! 본래가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야, 내 아들을 보면 틀림없이 변화될 것이야. 틀림없어!' 주인은 끝까지 소작인들의 마음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작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착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라는 믿음뿐입니다. 주인은 소작인들의 최후의 양심을 믿는 일념과 희망에서 아들을 보냅니다. 결과는 아드님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나를 더 믿으십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하느님 당신의 사랑과 용서의 품에 받아들이기 위한 선하신 뜻입니다. 이는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의 생명을 걸고 또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를 향한 용서와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느님의 그 사랑과 용서, 신뢰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엄마는

엄마는 딸이 선이 될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지.

어릴 적엔 선이면 엄마 없이도 살아질 거 같아 고개
끄덕였는데

선을 넘고 보니 딸은 예순이 넘어도 엄마가 계셔야
겟는 걸.

내가 선 넘도록 곁에 계시는 엄마 고마워라.

딸이 선이 되도록 나 또한 살겠노라 다짐하다가

신이 엄마 없는 이들에게 하는 편애는

모르는 척 하기로 했네.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지아 클라라	송인선 안젤라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	송인선 안젤라	김금자 테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송인선 안젤라	이민상 요한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	변복순 베로니카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10월
목주기도 성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 입니다.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목주기도 성월 기도문' 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학부모 간담회

- 일시 : 오늘주일(8일) 오전 10시30분~ 오전 11시30분
 - 장소 : 강당
- 주일학교에 관하여 학부모님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 수가 많은 5학년과 중,고등부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F.I.G.S Lock-in

- 일시 : 10월20일 오후6시30분~ 10월21일 오전10시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 대상 : 주일학교 고등부

◆ 주일 미사 후 영화상영

- 주일 낮 미사 후 전신자를 위한 영화 상영이 있겠습니다.
많이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0월8일, 15일 오후1시
 - 장소 : 성전
 - 제목 : 오두막(The Shack, 2017)

◆ 10월 요셉회모임

- 특별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일시 : 10월 15일(셋째주일) 11시 미사후
 - 장소 : 강당
 - 연락처: 정기은 비오 ☎ (310) 780-2789

◆ 글로리아 성가대 악기협조단원 및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는 기도이며 찬양이며 또한 주님을 향한 열렬한 봉헌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를 “교회
와 모든 이웃”을 위해 발휘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 역시 주님
이 보시기에 좋으실 것입니다.

- 악기 협조 단원 : 바이올린, 플룻, 트럼펫 연주자 각 1명
(대축일 및 특송을 준비합니다.)
- 성가 단원 : 성가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하시고 싶은 모든 분.
- 문 의 : 김 용 스테파노 ☎ (310)926-2248
♡♡♡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

◆ 30회 남가주 성령채신대회 CD가 나왔습니다.

- 가격 : \$20, 사무실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강혜원 아네스 ☎ (310)780-0369

◆ 성 당 홈페이지의 봉사자 명단을 갱신합니다.

(www.103skcc.org)

관계 봉사자분께서는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공지사항을 보시고 댓글이나 홈페이지 이메일로 각 분
과에 구성된 봉사자분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8일)에 마감하고 수정작업을 시작 할 계획
입니다.

●안재만 다니엘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103skcc@gmail.com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 8일: * 소고기 미역국(\$3, 토남3반)
* 주일학교: 카레라이스 (12 학년)
- 10월 15일: * 카레 덮밥(\$3, 토동1반)
* 주일학교: (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국세찬 권오상 김교복 김선제 김양금 김여순 김 은 김정웅 김중렬 김충섭 김현숙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박종열 박준범 박진희 방정복 송기철 신경훈 신용섭 안재만 엄세중 오명섭 오세원 오일순 유경자 이근모 이근태 이미예 이상청 이종태 장영진 정순석 정인욱 주용순 최기남 최동한 최미열 최태훈 하양숙 한장환 의 명 합계:\$10,480	국세찬 권오상 김교복 김선제 김양금 김충섭 김현숙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박종열 방정복 신경훈 신용섭 안재만 오세원 유경자 이근모 이미예 이종태 장영진 정순석 정인욱 주용순 최미열 최태훈 한장환 합계 : \$2,210
주일미사헌금 :\$2,787	주일학교입금 \$2,000 2차헌금 : \$ 566

◆ 젊은이들의 '기도 맞들이기' 모임 (찬양과 나눔)

- 일시: 10월 14일(토) 오후 4시
- 장소: 백삼위 한인 성당
The Saints Koer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Torrance, CA 90505
- 문의: 이명서 수녀 ☎(310) 741-0556

◆ 중·고등부 성경공부 'Junior Bible Study'

- 일시: 10월 21일(토) 오후 4시
- 장소: 백삼위 한인성당
- 문의: 이명서 수녀 ☎(310)741-0556

◆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 (9개월 과정)

- 지도: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전 아네스 (Jenny Jun) ☎(213)507-1144

◆ 제18회 말씀의 초막절(The Feast of Divine Word)

말씀의 초막절은 지난 1년 동안 이민생활의 광야에서 돌보아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축제입니다.

- 일시: - 개막미사 10월 8일(일) 4:00PM
폐막미사 10월 15일(일) 4:00PM
- 주간예절 10월 9일(월) - 9월13일(금),
(점심, 저녁 식사 제공)
10:00-12:00 AM & 7:30-9:30 PM
- 대상: 관심있는 모든 신자
- 문의: 714)521-1345
- 장소: 남가주 가톨릭성서모임(CBLM) 센터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최대제 신부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323)731-4433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역 / 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강순복 요셉피나 10/04(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리치오 781-0787	장수영 패트리치오 10/14(토)오후6시성당 강당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10/17(화)오후8시 성당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김충섭 마틴 10/01(일) 오후5시
	2	김 아네스 (419)309-7256	심재은 클레멘스 10/14(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0/14(토)10시30분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1	최옥희 데레사 755-8462	최옥희 데레사 10/20(금)오후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10/10(화)오전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10/08(일)12시30분 성당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최미열 클라라 938-8089	권오상 바오로 10/09(월)오후7시
	2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숙자 수산나 10/14(토) 오후6시 성당 2층R3
	2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유현화 리디아 10/13(금) 오후7시
	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안민수 베드로 10/14(토)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박준범 요한 10/14(금) 오후7시
	4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한애정 올리아나 10/11(수)오전 10시 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단체모임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요셉회	미사 후
-----	------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누구도 하기 싫은 일

작가로 살아가면서 신앙과 가장 부딪히는 마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교만’입니다. 분명 주님께 받은 은총으로 과분한 인정을 받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저 자신을 특별한 부류로 착각하게 되니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은총은 누리고 봉사는 뒷전이기에 일쑤지요. 물론 봉사라는 걸 아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자모회 활동 조금, 반장 활동 조금, 성서모임 봉사 조금. 이것저것 찢끔찢끔 흉내만 내는 신앙 생활을 제법 오래 이어왔으니까요. 그러다 몇 년 전, 그나마 해오던 봉사들을 일시에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주일만 지키는 신자’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실수가 계속됐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해오던 모든 봉사를 포기했습니다. 아니죠. 포기라는 단어는 놓기 어려운 것을 놓았을 때 쓰는 말이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봉사를 때려치웠습니다.

처음엔 신앙심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쫓기지 않으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부담을 내려놓고 보니 곁에 있는 교우들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드디어 작가라는 ‘고고한 신분’을 회복한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아이들 간식은 만들어졌고, 제가 없어도 구역장님께서 저희 반원들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시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주일 신자로 돌아가고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직 후임 반장이 정해지지 않아 성사표를 돌리기로 해놓고는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필이면 그해 들어 가장 추운 날 성사표를 돌리게 되었지요. 오랜만에 만나는 어머님들은 언 손을 붙잡아 호호 불어주시고, 보고 싶었다고 안아주시고, 글은 잘 쓰고 있냐 물어봐 주시고, 추운 날 고생한다며 김 한 톳, 양말 한 상자, 녹차 봉지 같은 선물들을 쥐여주셨습니다. 달랑 성사표만 들고 나섰던 제 양손이 선물들로,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풍성해졌습니다. 고작 2년, 억지로 떠맡아 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셨기에 그것은 사랑이었고 다시 사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이 글이 훈훈하게 마무리되려면 저는 그날로 다시 봉사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봉사를 쉬고 있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특별한 봉사가 주어질 거라는 교만한 마음과 여전히 싸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그 어려운 걸 오늘도 묵묵히 해내고 계신 수많은 봉사자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 김나영 요셉파나 / 작가

[길을 찾는 그대에게]

미사의 중심이 제대라면 미사가 없을 때에는 감실에 절을 해야 하나?

☞ 전례의 중심은 제대라 하면서도, 성당의 중심은 감실이라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공경하는 모습이기에도 의례 그러려니 하는 것일까요? 종세 이후, 교회 안에 자리한 성체 신심운동이 감실의 중요성을 일깨운 덕이기도 하겠지요. 그럼에도 감실은 병자, 혹은 개인적 사정으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에게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물론 미사에서 남은 성체를 보관하고, 미사 중에 신자들을 위한 제병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는 감실을 성당 안에 감실경당을 만들어 따로 안치할 것을 권하고 부득이 경당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제대의 중앙 자리를 비켜 위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요. 교회가 ‘감실의 위치’를 현명하게 배치할 것을 권하는 이유는 제대의 중요성이 감실의 중요성에 밀려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당의 축성예식 때에도 제대가 으뚱이 되고 성당을 허물고 재건축을 할 경우, 꼭 제대가 있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제대는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성찬례를 거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구원의 계약을 갱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당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점이며 원천인 성찬례 거행을 위한 건물입니다. 따라서 제대는 미사와 무관하게 항상 성당의 중심입니다.

◆ 권순호 신부 / 주례성당 주임

“공동선(共同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의 선(善)을 바라며, 그 선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선 이외에, 사회생활과 관련된 선, 곧 공동선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가정, 중간 집단이 함께 모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선입니다.”(베네딕토 16세 교황, 「진리 안의 사랑」 7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공동선을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완성을 보다 완전하고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체”(「사목헌장」 26항)라고 정의합니다. 공동선은 인간 기본권의 존중과 신장, 사람과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선의 발전, 모든 이의 평화와 안전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평화를 위한 노력, 국가 권력 기구, 건전한 사법 체계, 환경 보호, 모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 제공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음식, 주거, 노동, 교육, 문화와 교통, 기본적인 의료 혜택,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같은 인간 권리의 수호도 필요합니다.

공동선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동선을 이루고 증진하는 데에 협력할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동선을 달성해야 할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게도 있습니다. 공동선은 정치권력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정당화되고 그 의의를 발견하며, 공동선에서 비로소 고유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사목헌장」 74항)

실제로, 국가는 전 국민이 공동선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의 공동선의 표현인 시민 사회의 결속, 일치, 질서를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단체는 혼자서는 참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온전한 발전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질적 문화적 도덕적 정신적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치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선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서로 다른 이익들을 정의의 요구와 조화시켜야 하는 각별한 의무를 지닙니다. 집단의 특수한 이익과 개인의 특수한 이익을 올바르게 조정하는 일이 사실상 공권력이 맡은 과제 가운데 가장 힘든 일입니다. 모든 국가와 위정자들이 공동선에 대한 자신들의 책무를 마음에 새겨 전 인류 가족의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시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물론 공동선을 위한 우리 각자의 책임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Quiz 괄호 안을 채우세요.

공동선은 ()의 존중과 신장, 사람과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 모든 이의 ()와 ()을 전제로 합니다.

10월1일 자 정답:목주기도, 수난, 부활, 신비, 성모마리아

◆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

「성경 속 동식물」 38 회개의 상징인 수탉

성경에서 수탉은 베드로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인상적이다.(마태 26,66-75 참조)
어두움과 악의 힘을 내쫓는 수탉의 울음은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상징이 되었다.
(마태 26,34; 마르 14,66-68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 종말에 앞선 여러 환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인자’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닭을 언급하셨다.(마르 13,35 참조)

수탉은 새벽에 울기에 경계, 조심스러움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초대 그리스도교 묘지의 석관 위에 그려진 닭은 새로운 날, 부활을 상징한다.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를 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직급/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눅스 등 각종그릇, 한국택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reen.
Pharmacy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상 대기

TEL)310-516-8282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3215 Hawthon Blvd. Torrance, CA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파고다 캐더링

각종 말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플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